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로 알려주세요.



풍랑 (마태복음 14장 22-32절)

“사형 불가”... 교황청 교리문답서 수정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청이 사형 전면 불허로 가톨릭교회 교리문답서를 공식적으로 수정했다.

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교황청은 전날 성명을 내고 가톨릭교회 교리문답서에 “사형은 인간의 신성과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어떤 경우에도 사형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바티칸은 또 교리문답서 수정과 함께 전세계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사형제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톨릭은 수세기 동안 일부 특별한 경우에만 사형을 인정해왔으나 지난 2005년 선종한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이번에 사형제 전면 반대 내용이 교리문답서에 포함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즉위 이래 사형을 절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지난 2015년 미의회 연설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교황은 당시 “모든 생명이 성스럽고 모든 인간이 빼앗길 수 없는 존엄성을 타고난 까닭에 나는 사형제 폐지가 최선의 길이고,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복귀 훈련이 유일하게 사회에 유리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바티칸이 교리문답서에 공식적으로 추가한 사형제도가 가톨릭 내 보혁갈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미국 등 여러 국가의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53개국이 사형을 선고했고, 23개국이 최소 99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반면에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도 106개국에 달한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선지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이동하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앓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스페인) 도망하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의 원인 불순종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불순종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을 만났든지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든지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풍랑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살다보면 우리에게 크든 작든 풍랑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풍랑이 있는가하면 불순종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떠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크고 작은 풍랑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풍랑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친히 산위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근심과 슬픔에 잠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 15:5) 약속해 주셨습니다.

집을 떠나 광야의 먼 길을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그네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3:2에서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몰아치는 풍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주실까요? 때로는 풍랑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느껴 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넘실대는 바다를 걸어들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억의 사람이 살았지만 물위를 걷은 사람은 베드로 밖에 없습니다. 풍랑 때문에 베드로는 물위를 걷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새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의심하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성경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 (30-31)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도 ‘즉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람이 잔잔하랴! 할 때 바람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때문에 요나는 다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순종해서 풍랑을 만나든,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나든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롬8:28) 것입니다.

-강용규 목사-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